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2 인문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 ■ 출제의도

정의(正義, justice)란 무엇인가? 원래 정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으로 출발하였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는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개인적 덕목으로서 정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커지면서 정의는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정의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 정의를 가리킨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혹은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부와 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즉 분배정의의 문제는 각 시대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한 축이다.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분배정의에 대한 비판과 반박으로 드러난다.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이윤논리의 극대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증대하되 구체적인 분배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공리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노동의무와 복지혜택을 연동하는 워크페어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량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워크페어는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이지 않고, 확장된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모든 시민은 일정량의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권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된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폭발적인 생산성으로 사회적 부는 커지겠지만 그에 비례하여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기술이 전통적인 직업을 없애고 거대한 부를 창조함에 따라 기본소득 없이는 진정한 기회균등은 불가능하고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등장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입면접문제뿐만 아니라 논술문제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기에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이번 생글경시대회를 계기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 ■ 제시문 분석

(가)

카푸신 원숭이들을 너 달 동안 연구한 뒤, 에머리 대학의 프린스 드 발과 새러 브로스넨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 영장류는 원시적 정의감을 지녔고, 어떤 경우들엔 자신들의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저항한다. 그 발견은 정의가 혼육의 산물, 즉 부모들과 공동체가 가르친 것이라기보다는 진화되어온 특질임을 가리킨다. 그들은 누런 카푸신 원숭이들의 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카푸신 원숭이들은 무척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잘 협력한다고 알려진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들은 원숭이들에게 토큰들을 주고 손바닥을 내밀어서 오이 한 조각과 맞바꾸어 토큰을 달라고 했다. 원숭이들은 처음엔 이 물물교환이 만족한 듯했고, 보상에 대해 토큰을 기꺼이 포기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원숭이들을 불공정하게 다루기 시작하자, 사태는 정말로 흥미로워졌다. 그들은 한 원숭이에게 파트너가 훤히 보는 상황에서 달고 즙이 많은 포도를 주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파트너에게 포도가 아니라 전처럼 오이를 내밀었다. 그 원숭이는 오이를 물리쳤다. 연구자들은 원숭이 다섯 마리들에 대해서 다르게 변주된 실험을 50회 넘게 시도했고, 40%의 경우들에서 자멸적이고 반항적인 반응을 얻었다. 한 원숭이에게 아무런 까닭 없이 포도를 줌으로써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단계 진행시키자, 다른 원숭이들의 저항은 급절로 늘어났다. 다섯 번 가운데 네 번꼴로 원숭이는 토큰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거나 오이를 물리쳤다. 때로 속이 상한 원숭이는 토큰을 실험실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영장류의 이러한 독선적 분개는 ‘**사람의 행동은 매우 오래된 진화적 뿌리들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속이 상한 원숭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듯했고, 그들의 반응들은 그것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뜻 있는 얘기를 해준다. 따지고 보면,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이유 없이 보상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공정감이 기본적 감정들만큼 원초적이고 그 둘이 오랜 진화 기간을 통해 함께 물려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제시문 (가)는 <뉴스위크>에 실린 ‘나의 공정한 원숭이(My Fair Monkey)’란 글의 일부이다. 영장류에게 공정함에 대한 관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카푸신 원숭이는 불공정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거래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반응은 거래가 불공정한 정도에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정의가 혼육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되어온 특질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 (가)에서는 카푸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정의가 ‘공정’과 관련된다는 것, 다시 말해 정의감이 본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세계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다음의 귀납적 규정이 소유물에서의 정의(justice)의 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2. 소유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소유물을,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3. 누구도 위의 1과 2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뿐이다. 즉, 어떠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모든 분배는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그리고 하나의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예를 들어 정직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예를 들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정의롭다.

☞ 제시문 (나)는 로버트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발췌 운문하였다. 소유물의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는 사물들이 소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소유된 상태로 변화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소유된 재화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소유권의 정당한 취득과 이전이 전제된 분배는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시문 (가)와 연관시켜 본다면 인간의 소유권은 생물학적 본성일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을 보장해 줄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 첫째, 개개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광범위한 체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이 같은 권리와 자유에는 민주적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 양심, 평화적 집회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첫 번째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다음의 두 번째 원리를 위해서라도 결코 위배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기본권들은 최대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 교환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전체, 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모든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식품점 점원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은, 만약 이것이 정반대일 경우라면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식료품 점원은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의사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의사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 식품점 점원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이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와 같이 특정한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이득을 주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이르게 한다.

☞ 제시문 (다)는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발췌한 것으로 정의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한 글이다. 정의의 두 가지 원리인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원리인 ‘차등의 원칙’이다.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전체, 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는 ‘최소극대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제시문 (가)와 연관시켜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며, 이러한 이타적 본성이 인간의 정의감의 생물학적 근원이라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본소득제는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배경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복지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복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공지능·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 주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1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이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지급액은 연간 2072달러(약 230만원)였다. 2008~2009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과 2011~2012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됐고, 핀란드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다.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도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다.

☞ 제시문 (라)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물론 도입논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소득제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나미비아, 인도, 스위스,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실시되었거나 시범도입되며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나미비아와 인도와 같은 빈곤국가, 저개발국가에서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제 실시에 있어 해당국가의 경제수준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문항 해설

[문제 1] (가)의 논지를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를 비교분석하시오.  
(500-600자, 40점)

비교를 요구한 문제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잘 드러나도록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우선 공통점은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서술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인데, 제시문의 단순 요약 나열로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시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선명하게 서술하는 게 좋다. 독해가 정확했더라도 대상 제시문을 구별하는 내용을 서두에 밝히지 않는다면 평가자는 비교분석이 아닌 제시문의 단순 나열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차원에서 제시문의 논지, 즉 차이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치하여 제시문 간 대비가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논제에서 제시문 (가)의 논지를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분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제시문 (가)의 논지 자체가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기준을 설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 제시문 (가)의 핵심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으로도 두 제시문의 비교하는 기준 제시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와 (다)의 차이점을 정리할 때에도 제시문 (가)의 핵심논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시문 (가)에서 정의감이 생물학적 본성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각각의 제시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명하게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서술만으로도 차이점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답안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2] 제시문 (나), (다) 중 보다 적절한 관점을 선택하여 제시문 (라)의 ‘기본소득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800-1,000자, 60점)

먼저 논술문제에서 답안으로서 자기 견해서술은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제와 제시문으로 구성된 문제이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제시문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기 때문이다. 논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 정확한 제시문 독해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제시문이 어떠한 논리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견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제시문들의 핵심논지를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

[문제 2]에서는 제시문 (나)와 (다)를 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제시문 (라)의 ‘기본소득제’를 우리 사회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제시문 (나)와 (다) 중 어떠한 입장을 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와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분석한 후 논리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서술해 나가면 될 것이다. (나)입장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반대, (다)입장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찬성이라고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기본소득제의 취지가 각 입장의 정의감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어떠한 견해를 피력하든 간에 자신의 견해의 논리적 근거를 탄탄하게 제시하였는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한편, 제시문 (라)에서 서술된 기본소득제의 도입논의 배경이 한국사회에 적용가능한가의 여부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서술할 때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때에는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주관적 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게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견해를 서술할 때에도 자신의 견해가 선택한 제시문의 입장의 핵심논지와 논리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